

전남광주 농공단지 74% 인구감소지역...“지원 사각”

전남광주지역 농공단지의 74%가 인구 감소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농공단지가 노후화와 인력 유출의 이중고 속에서도 산업단지 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 공모사업 우대와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농공단지 486곳 가운데 331곳(68.1%)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광주는 농공단지의 74%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전북은 60곳 중 49곳(약 82%)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북·경남은 각각 72%, 강원 68%, 충남 65% 순이었다.

농공단지는 1983년 ‘농어촌 소득원 개발 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돼 40년 넘게 농어촌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485개 단지가 지정돼 86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노후화와 인력 유출 ‘이중고’...경쟁력 약화 공모사업 우대·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필요

그러나 이 가운데 319개 단지, 약 66%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지로 집계됐다. 시설 노후화에 농어촌 인구 유출과 지원 인프라 부족이 겹치면서 단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농공단지가 산업단지 지원사업

에서도 충분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그린산단과 인공지능 전환(AI) 실증산단,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주요 사업이 농공단지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별도의 우대 장치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규모와 역량에서 국가·일반

산업단지에 뒤처지는 농공단지는 공모형 지원사업에서 밀려나 사실상 정책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기존 지원사업 내 우대와 농공단지 전용 지원을 병행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스마트그린산단·AI 실증·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의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 농공단지 우대 장치를 마련, 대도시 산업단지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공단지에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도 요

구했다. ‘농공단지 개발·운영 통합지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부와 공단이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 전용 활성화와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공단지는 지방소멸을 막는 방파제인데 지원은 대도시 산단만 바라보고 있다”며 “균형성장의 온기가 농촌의 작은 공간까지 닿도록 농공단지의 몫을 반드시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 지각변동 하이브리드차 판매 첫 감소

매년 성장을 거듭해온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올해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전기차로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전년대와 함께 현대차·기아의 생산 차질과 주력 모델 노후화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1~9월) 국내 하이브리드차(마일드하이브리드 포함) 신규 등록은 42만1199대로 작년 동기보다 3.9% 줄었다.

연료별 등록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1~9월 기준)이 감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내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1~9월 기준 2021년에는 17만4347대(13.1%)로 비중이 처음 10%를 넘었고 2022년 20만3212대(16.3%), 2023년 27만8500대(21.0%), 2024년 35만5404대(29.4%), 지난해 43만8170대(34.5%)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 하이브리드차 성장세가 꺾인 배경으로는 수요와 공급 요인이 모두 거론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차로 이동했던 국내 자동차 중심축이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측면에서는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차 생산 차질과 모델 노후화가 꼽힌다.

지난 3월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로 주요 차종의 인도가 지연됐는데 여기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ES 2026 (한국전자전)' 삼성전자관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대화면과 강력한 성능을 바탕으로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콘텐츠 감상에 적합한 화면비를 적용한 새로운 폼팩터의 '갤럭시 Z 폴드8'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최신 AI 기술·혁신 제품 선보인다

‘한국전자전’ 참가...일상에 스며든 AI 라이프 공개

배송·설치·케어 서비스 강화 ‘삼성 AI 구독’ 소개도

삼성전자가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COEX)에서 열리는 ‘KES 2026 (한국전자전)’에 참가해 일상의 동반자가 되는 최신 AI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에서 디스플레이, 가전, 모바일 등 AI 기술을 대거 탑재한 최신 제품들이 일상에 스며들어 고객의 삶을 혁신하는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체 약 869㎡(263평) 규모의 체험 공간을 구성했다.

먼저 삼성전자는 일상의 동반자가 되는

차세대 AI 가전 경험을 제시한다.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패밀리 허브, 마이크로 RGB 등 다양한 AI 제품을 전시하고 일상을 혁신하는 AI 리빙 경험을 선보인다. 또 개인 맞춤형 AI 경험을 선사하는 ‘비전 AI 컴패니언’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비전 AI 컴패니언’은 사용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TV 콘텐츠 정보를 안내하고 다양한 질문에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한다.

삼성전자는 배송, 설치, 케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 ‘삼성 AI 구독’도 소개했다.

구독 제품의 설치부터 AS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 갤럭시 Z 폴드8 시리즈를 중심으로 제품 체험존을 마련, 다양한 갤럭시 신제품을 선보였다.

관람객들은 헤리티지존에서 2019년 최초의 ‘갤럭시 폴더’를 선보인 이후 끊임없는 폼팩터 혁신으로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온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의 진화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모바일 제품의 파손·분실·침수 보장과 잔존가 보장 등을 제공하는 ‘New 갤럭시 AI 구독클럽’도 소개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불법파견 호소 늘지만...광주노동청 기소 ‘0건’

상반기 진정 18건...지난해 연간 접수 규모 넘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이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현장의 불법적인 인력 운용과 중간착취를 호소하는 진정은 늘고 있지만 같은 기간 기소 실적은 한 건도 없어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독과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광주노동청의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 접수 건수는 1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인 17건보다 1건 많다. 반면 만에 전년도 전체 규모를 넘어선 셈이다.

광주노동청의 연도별 접수 건수는 2022년 10건, 2023년 6건, 2024년 15건, 지난해 17건이었다. 2023년 감소한 뒤 다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70.0% 증가했다.

반면 기소 실적은 감소했다. 광주노동청의 기소 건수는 2024년 7건에서 지난해 3건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0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진정 증가와 기소 실적 감소가 엇갈리면서 현장 감독과 후속 조치가 노동자의 권리 구제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소 외 조치 실적도 제한적이었다. 지난해 광주노동청의

조치 결과는 시정완료 7건, 행정처분 1건이었으며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정완료와 과태료, 행정처분 모두 0건이었다.

다만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광주노동청의 ‘위반없음’은 지난해 8건, 올해 상반기 4건이었으며 ‘기타’는 각각 18건, 1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불법파견·위장도급 관련 진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접수 건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3년 124건, 2024년 193건, 지난해 292건으로 늘었다. 3년 새 약 2.7배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74건이 접수됐다.

전국 기소 건수는 2024년 41건, 지난해 54건, 올해 상반기 12건이었다. 지난해 시정완료는 14건, 행정처분은 1건이었고 과태료 처분은 없었다.

사업장 근로감독과 관련, 지난해 파견 위반 적발 199건 가운데 무허가 파견은 7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두 사내하도급 근로감독에서 확인됐다.

무허가 파견 적발 건수는 2023년 80건, 2024년 71건, 지난해 79건으로 해마다 반복됐다.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위반도 같은 기간 각각 63건, 54건, 47건이 적발돼 불법적인 인력 활용을 차단할 현장 중심의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KH MEDICHECK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60415-중-211304호

건강검진

매일체크✓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